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플라쥬 기법 분석 및 표현특성 연구

오정은* · 박숙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석사과정*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현대 미술에서 플라쥬 기법은 평면적인 회화를 삼차원의 세계로 끌어올리면서 보다 입체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들로 이후 현대 미술사를 통해 다양한 장르로 파생, 발전되어 왔다. 특히 포스트모던의 현대사회의 문화현상에서도 모든 이질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으로 형식상의 공통점을 보이면서 그 의미의 확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미술사적, 사회문화적 영향은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기존의 화장품이외에 다양한 소재 결합과 표현방법을 활용하여 메이크업 컨셉에 장식성과 극적효과를 높여 더욱 자유롭고 입체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플라쥬 기법을 분석하고 표현방법을 고찰하여 표현특성을 분류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메이크업 디자인의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미술사, 복식사, 학회지논문, 학위 논문 등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플라쥬의 개념과 조형양식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2000년 이후 컬렉션지(L'Officiel1000 Models, Gap Collection, Fem Collection, Gap Press)와 인터넷 사이트(Firstview.com)등에서 플라쥬 기법이 활용된 디자이너의 메이크업 작품 105점을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셋째, 선정된 자료를 소재, 형태, 강조부위, 강조방법, 디자이너별로 빈도분석하고 표현특성을 유형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재별 사용빈도는 종이류 26%, 스펅글·인조보석류 18%, 패브릭 18%, 금속 10%, 깃털 9%, 인조눈썹 6%, 글리터 6%, 기타(플라스틱, 비닐, 채소, 실리콘) 7%로 나타났으며, 표현형태는 추상형태 43%, 눈·눈썹·입술모양과장 19%, 기하학형태 17%, 마스크(베일)형태 14%, 자연물 4%, 기타(눈물, 채소등) 3%로 나타났다. 강조부위는 눈(눈주위)

37%, 얼굴전체 20%, 이마 14%, 볼(광대뼈) 11%, 눈썹 9%, 입 3%, 얼굴중앙 3%, 기타(목, 가슴 등) 3%로 나타났다. 강조방법은 붙이는 방법이 82%로 나타났는데 그중 얼굴의 특정 부위(눈, 입등)를 막는 방법도 전체의 8%로 포함되었으며 두르거나 씌우는 방법이 18%로 나타났다. 디자이너는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과 존 갈리아노 컬렉션의 존 갈리아노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 세레딘 & 바실리에브와 요지 야마모토, 크리스찬 라크르와 등의 디자이너는 1~3 작품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위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표현상의 특성을 분류한 결과 유희적 특성, 그로테스크적 특성, 에로틱특성, 미래지향적 특성으로 분류되었다. 유희적 특성은 종이류, 깃털, 인조눈썹, 인조보석류, 패브릭 등으로 얼굴조형요소를 과장하여 극단적으로 묘사하거나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문양이나 자연물 형태로 부착하여 경직된 일상생활에서의 해방감과 의의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로테스크적 특성은 종이류, 깃털, 금속, 플라스틱등의 오브제로 눈, 코, 입 본래의 형태를 무시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거나 얼굴자체를 은폐, 또는 동물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묘사하여 기형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기괴함을 나타낸다. 에로틱 특성은 여성적 화려함을 부각시키는 인조보석류를 부착하거나 레이스, 망사 등의 비치는 소재로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려서 여성의 신비로움을 표현하거나 얼굴의 특정 부분만을 드러내어 나타냄으로써 도발적 느낌을 주기도 하며 타투 문양을 부착하여 자극적이고 불건전한 양상으로 퇴폐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미래적 특성은 금속, 비닐, 플라스틱 등의 광택 있는 소재와 실버계열의 글리터를 입체적으로 사용하여 미래의 사이버적인 비인간적 이미지와 차갑고 기계적인 형태를 연출한다.